

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, 여름철 재해 대비 '총력'

✎ 유승현 | ☎ 승인 2025.06.20



▲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가 본격적인 장마와 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해 최근 지역 내 시설물을 점검했다.

기상청이 최근 기후변화로 올 여름 평년수준 이상의 강수량이 예상된다고 발표한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가 여름철 재난대비에 나섰다.

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(지사장 황희동)는 본격적인 장마와 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해 지역 내 저수지 사전 방류 및 시설물 점검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. 홍수기 이전에 저수율

을 관리수위 이하 수준으로 낮춰 집중호우 시 물을 효과적으로 저장, 하류 지역 침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.

구체적으로 최근 저수지 사전방류를 통해 평균 저수율을 약 53%로 낮춰 비상시 여유 저수공간을 확보했다. 또 저수지 제방, 취수시설, 방류시설 등 시설물 안전 점검 및 보수를 완료했다. 이어 저수지 비상대처계획(EAP)을 점검하고, 저수지 하류 주민 대상 주민대피계획 안내 등을 실시했다.

황희동 지사장은 “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홍수기에 맞춰 농업기반시설물에 대한 상시 점검 및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, 재난발생시 유관기관과 즉각 조치해 주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도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했다.



▲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가 본격적인 장마와 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해 최근 지역 내 시설물을 점검했다.



